

청년녹색당 2015 사업평가

I 총평

- 프로젝트 사람들 이후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 1명 사퇴, 그리고 영덕 성폭력사태 이후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 다른 1명 사퇴 및 운영위원 2명 사퇴.
- 상반기 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었으나 영덕 성폭력 사태 이후 역량이 소진되어 많은 사업이 무산됨
- 이런 상황에서도 계획에 없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연대활동, 기자회견, 논평/입장문, 언론 보도에서의 언급 등 활발한 대중사업을 함.
- 사업체계의 발전: 기획-집행-평가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제기됨. 상반기에는 잘 되었으나 영덕 성폭력 사태 이후 잘 진행되지 않음.
- 성폭력 사태와 같은 큰 사건이 터져도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전업 사무국장의 존재가 필요함.
- 운영위원회의 안정이 필요함.

II 사업별 평가

1. 계획에 있었고 진행된 사업

(1)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2015년 2월 7일 총회 이후부터 2015년 12월 5일 총회까지 청년녹색당 제 4기 운영위원회는 총 9차례의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임시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2) 워크샵

2015년 8월에 영덕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고, 또한 2015년 12월 총회 후 MT를 가졌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여름캠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진행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사업계획을 당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여름캠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겨울 MT에서는 반성폭력 내규를 제작하고 행사 시작 전에 공유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 외, 여름캠프는 청년당원들끼리만 가면 좋겠다는 평가, 기획을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고, 겨울 MT에서는 숙소가 좁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향후에는 이런 평가를 반영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

(3) 학술세미나

“청춘의, 청춘에 의한, 청춘을 위한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3주에 한 권씩의 책을 읽고 총 10회의 세미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세미나는 제 3회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진행되지 않았다. 애초 목표와 달리 청년녹색당에 청년들을 그다지 유입시키지 못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형식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다음번에 비슷한 사업을 할 때에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친목모임

친목모임은 청년녹색당 당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신입당원 또는 활동이 적은 당원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되, 편한 자리로 만들어 당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

다. 2015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5회의 친목모임을 가졌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5) 찾아가는 대중강연

총 3회에 걸쳐 정희진, 김조광수, 하종강 등의 연사를 초청해서 대학캠퍼스에서 강연을 열었다. 각각 여성, 성소수자, 노동 등의 주제를 다루어서 녹색당의 가치와도 잘 맞았으며 각 강연 별로 참가자가 50명이 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향후 비슷한 사업을 할 때에는 본 사업 처럼 적합한 주제와 연사를 선정하는 등 기획을 잘 하여야 한다.

2. 계획에 없었으나 진행된 사업

(1) 프로젝트 사람들

청년좌파와 함께 프로젝트 사람들을 진행하였다. 관련해서 녹색당 제 3회 대의원대회에서 <사람들>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토크콘서트 <사람들>에 참여하여 탈핵서명 부스를 운영하였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청년녹색당의 역량을 지나치게 소진시켰으며, 향후 비슷한 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2)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2015년 6월 동안 청년유니온 외 청년학생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였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회의 두 차례, 기자회견 두 차례 및 런치 문화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연대활동의 일환으로써 의미가 있었고 청년유니온과는 연대활동을 하는 것은 좋다는 평가가 있었다.

(3) 기자회견 참여

청년녹색당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참사 1주기 남미순방 규탄 및 시행령 폐기 촉구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학구조개혁법안 상정 반대 기자회견 연서명
기성회비반환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규탄 기자회견 참가
행복주택입주기준 및 임대료 규탄 기자회견 참가
서울시청년 고금리 실태조사 실시 기자회견
비례대표제축소 규탄 기자회견
<청년일자리개혁과제 요구안> 노사정위원회 전달 청년당사자 기자회견
청년의권리보장과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청년단체 합동 기자회견

(4) 집회 참여

후쿠시마4주기 대학로 탈핵집회
영덕신규원전 반대집회
세월호참사 1년 범국민 집중행동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 촉구 범국민 추모문화제
민중총궐기참가

(5) 기타 연대사업

그 외 청년녹색당이 연대했던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알바노조,청년유니온 열정페이 연대서명
"핵없는세상을 위한 두드림" 참가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 긴급회의 참가
알바노조구교현 위원장 탄원서 연서명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연명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청년어울마당 연대발언
삼성직업병해결촉구이어말하기 33일차, 노숙농성 25일차
삼성직업병해결촉구이어말하기 37일차, 노숙농성 29일차

(6) APGF(Asia Pacific Greens Federation) 청년녹색당원 참가

APGF에 참가할 청년당원 1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선발된 송윤지 당원은 APGF에 다녀왔으며,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APGF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APGF 참가자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 사이에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고, 청년녹색당이 APGF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참가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APGF 참가를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Young Greens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나라 Young Greens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다음 번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운영위원 중에서 한 명이 가는 것이 나을 것이며, 질문을 충분히 해야 하고, 참가자와 운영위원회 간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한다.

(7) 청년정책집담회

총 두 차례의 청년정책 집담회가 있었다. 1차는 청년의제와 관련된 분야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당원들이 모여서 청년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제를 모아내고자 하였다. 2차 집담회에서는 1차 집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1차 집담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2차 집담회에서는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1차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당시의 '행사를 할 때 발제자의 성비를 맞추자'는 합의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두 차례의 집담회의 결과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16년에는 이 결과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8) 아주 소소한 정책 소담회

유럽 녹색당의 성장을 다룬 손어진 당원의 석사논문을 함께 읽는 모임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녹색당의 성장에 대해 공부하고 한국 녹색당의 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9) 기타 사업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다.

탈핵시민행동인증샷 업로딩
원폭70주년, 탈핵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공동주최
2015년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워크숍 <청춘: 나를 봄, 너를 봄, 우리들을 봄>
대학공공성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모두의 대학" 제2차 구조조정

워크숍
제1회청년정치개혁안 토론회 심사위원으로 참여
IRIS제3회 인문학 세미나 청년 진보당원 토론회 참여
와글와글청년정치토론회 주관단위 참여
리셋네트워크<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참가
녹색당정책대회 2016 청년분야 사회/발제/토론 및 종합토론
"청년정책2015 토론회" 패널 참가

3. 계획되었으나 진행되지 않은 사업

다음과 같은 사업들은 계획되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1) 당내 토론회

2015년 1년동안 청년녹색당 당원들끼리 청년녹색당의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합의하고, 청년녹색당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함께 고안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덕 성폭력 사태가 터지면서 운영위원회의 모든 역량이 성폭력사태 해결에 집중되면서 무산되었다. 2016년에 이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정치조직 진단 세미나

(3) 청년정치네트워크

(4) 청년당원끼리 온라인 커뮤니티

(5) 청사진 (청년녹색당이 들려주는 **사건과 진실** or **사소한 진실** or **사건과 진상**)

(6) 청년녹색당 정책자문위원회

Ⅲ 운영평가

(1) 청년모임

2015년에는 고려대모임, 연세대모임 구성원이 각각 10명 이상이 되어서 청년녹색당에 등록했다. 2014년에 서울대모임 한 모임이 등록한 것에 비해 청년모임 등록 수가 늘었다. 이로써 청년녹색당 공식 청년모임은 3개가 되었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 모임이 더 늘 것을 기대한다. 한편, 서울대모임은 활동이 점점 뜸해졌다. 활동을 다시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2016년에는 다시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려대모임에서는 등록 이후 게릴라가드닝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외, 청년녹색당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광주 및 부산에서도 청년당원 모임이 생겼으며, 부산 청년모임에서는 부산 남포동 탈핵퍼레이드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2) 당원활동

당원활동 공유의 일환으로, 마판승 당원의 활동과 유세화 당원의 활동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였다. 앞으로는 당원 활동 공유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3) 논평/입장문

청년녹색당은 201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논평 및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더 많은 논평을 쓰면

좋겠다.

국립대학회계법 논평
논평: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불허한 학교를 규탄한다
건국대사복형사 사찰 및 대학구조개혁 규탄 논평 발표
논평:청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허하라
논평:청년들의 고공시위를 일상화하는 대학을 규탄한다
입장문: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와 불통, 청년녹색당은 잊지 않습니다
청년녹색당논평, 그 이후의 이야기
논평: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평:메르스 종식 선언에 즈음하여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에서 청년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발표
청년녹색당여름캠프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황 발표
입장문: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퇴 및 탈당에 관한 입장문
입장문:배인영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퇴에 대한 청년녹색당의 입장

(4) 청년선거운동본부

청년선거운동본부 준비모임이 두 차례 있었다. 청년선거운동본부의 역할, 목적, 목표, 활동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역할분담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청년선거운동본부장의 역량이 지나치게 소진되어 후반부로 갈수록 잘 운영되지 않았으나 12월 5일 총회에서 청년선거운동본부 설치를하기로 하였다. 2016년 총선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5) 보도

청년녹색당의 활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더 많은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

"영덕에서'대게' 먹는 대신 '전단' 돌렸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발행
보도:"노사정 합의... 청년들 '임금피크제' 놓고 다른 목소리"
보도:"청년들 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 밑그림 그린다"
보도:"교육부 '유관순 모릅니다' 동영상... 도 넘은 국정화 홍보 '논란'"
보도:"집회 현장에서 '청소', 봉투 가득 채웠어요" 오마이뉴스 기사 발행
보도:"10분이면 딱딱, '헬조선'표 셀프 방독면" 오마이뉴스 기사 발행
보도:"청년들 "목소리 대변할 정치 원한다""

(6) 그 외 활동

필드빌더허브 "미소_미래와 소통하다" 청년녹색당 인터뷰
